

제과인의 대동단결

제2회 월간베이커리배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총 12개팀 참가, 동그라미회 우승 ... 지나친 승부욕 아쉬움 남아



제2회 월간베이커리배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0일 독섬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월간베이커리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출전 팀간의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그라미회가 우승, 인천 서구축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새벽부터 내리던 봄비가 빗방울을 더욱 늘려가고 있었다. 오전 9시, 전국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과업인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공 하나를 가운데 두고 등글게 한마음이 되기 위해 경기장에 입장했다.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총 16게임을 치뤘던 경기장에는 참가자들의 흥분과 땀방울을 고스란히 담으려는 듯 발자국들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승부욕 때문이었을까. 이날의 봄비는 상쾌하지만은 않았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 운동장에는 대회 본래 취지였던 친목과 우정의 맑기운보다는 과열된 팀 이기주의와 술기운만이 잦아가던 봄비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페어플레이 선서... 수중전 불구 열띤 응원

빗방울이 굵어지는 데도 선수단 일동은 개의치 않았다. 예정 보다 다소 늦어진 오전 10시, 대한 제과협회 권상범 회장을 비롯, 본지 홍성대 편집국장, 각 팀 선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권상범 회장의 축사가 끝난 후 선수단 대표로 서울 동부지회 지수철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선수단 대표 선서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30분, A,B,C,D 네 경기장에서 예선 첫 게임이 동시에 열렸다. 대회 첫 골은 B경기장에서 펼쳐진 서울 동부축구회와 인천 그린비팀과의 경기에서 터져 나왔다. 전반 5분, 서울

▶ **선서**

개회식에 이어 선수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 **시축** 대한제과협회 권상범 회장이 시축을 하고 있다.

▼ **파이팅** 복을 동원한 응원 모습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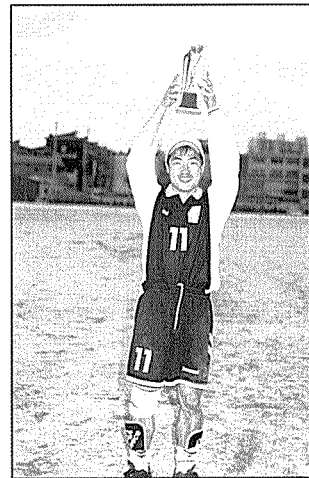


동부축구회의 김영찬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멋지게 성공시켜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후반 25분씩 예선 조별 리그를 모두 끝낸 시각은 오후 3시. 선수들의 파이팅은 단연 돋보였다. 수중전을 방불케하는 그라운드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투지와 넘어진 상대 선수를 부축해 주는 모습은 이 대회의 취지와 부합되는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예선 모두 박빙의 승부였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었던 우심회가 나폴레옹과자점을 5:0으로 이긴 것이 예선전에서 가장 큰 점수 차였다.

결선리그, 과열된 승부욕...대회 취지 무색하게 만들어

예선 조별 리그를 모두 끝내고 결선엔 모두 4팀이 올랐다. 각 조 1위 팀은 A조 인천 서구축구회, B조 서울 동부축구회, C조 우심회, D조 동그라미회. 고르지 못한 날씨에 맞춰 빠르게 진행된 스케줄 때문인지 오후 들어 선수들은 무척 지쳐 보였다.

4강전은 대진표대로 인천 서구축구회와 서울 동부축구회가, 우심회와 동그라미회가 각각 맞붙었다. 결과는 인천 서구축구회가 서울 동부축구회를 3 : 1로 제치고 먼저 결승에 선착, 결승 상대를 기다렸다. 동시에 치뤄진 준결승전 우심회와 동그라미회전에선 이번 대회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났다. 전후반 2 : 2로 팽팽히 맞서고 있던 양팀이었다. 연장 후반 종료 3분전쯤 동그라미회 선수가 우심회 문전에서 헤딩슛을 성공시켰으나 주심이 동그라미회 선수가 우심회 수비수의 어깨를 짚고 점프, 헤딩슛을 성공시켰다며 파울을 선언해 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일부 응원단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거친 욕설과 함께 주심을 과격하게 떠



▲ 이번 대회의 MVP

동그라미회 이대희 선수.



대회 우승팀인 동그라미호 회원들.

미는 등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 버렸다. 선수단 일동이 예선전부터 보여 주었던 페어플레이와 친목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이후 경기는 동그라미호측의 경기 거부로 약 40여 분간 지체됐다. 결선에서의 멋진 승부를 기대하고 있던 다른 팀 선수단과 주최측은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렸으나, 이들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정작 경기에 임해 열심히 땀 동그라미호 선수들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승부 판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했던 일부 참가자들이었다.

주최측의 경기운영도 문제점으로 남았다. 비록 2회밖에 안되는 짧은 경험에서 비롯된 경기진행의 미숙함이라 하더라도 승패를 명쾌하게 이끌지 못한 점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사안으로 지적된 것이다. 특히 일부 경기에서 제기된 심판 판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집단행동은 '친목 도모와 과업인 한마음 되기'라는 본 대회의 성격을 심하게 왜곡시켰다. 이런 식으로 치뤄지는 대회라면 더 이상의 대회 개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등 과업인 전체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나친 승부욕이 대회 전체의 존립 자체를 흔든 것이다.

경기가 계속 지연되자 주최측의 중재로 경기가 속행됐다. 그러나 우심회의 거의 경기를 포기한 듯한 파울로 얻은 동그라미호의 페널티킥이 우심회의 골문을 가르며 승부가 갈렸다. 지루하게 끝던 경기가 단 1분도 안돼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결국 동그라미호가 우심회를 3:2로 어렵게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이후 바로 진행된 결승전에서는 동그라미호가 인천 서구축구회를 2:1로 제압,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예선전을 비롯해 결승까지 총 6골을 성공시킨 동그라미호의 이대회 선수는 이번 대회 MVP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결승전과 동시에 치뤄진 3·4위전에선 서울 동부축구회가 우심회를 4:1로 누르고 3위에 입상했다. 또 페어플레이상은 한우물회, 월간베이커리특별상은 우심회, 그리고 응원상은 수원 수과회에게 돌아갔다.

곧이어 진행된 폐회식은 본지 홍성대 국장 및 관련 인사들과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멎기 시작했다. 승패에 관계없이 열심히 땀 모든 선수들은 오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기억이 마지막 빗방울에 깨끗하게 씻겨가길 바라는 듯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등에 묻은 빗물을 털고 있었다. [계]

〈글/오형석 ohs@mbakery.co.kr〉

예선전 전적

- A조**
- 한우물회(1승 1패)
- 리치몬드과자점(2패)
- 인천서구축구회(2승)

- B조**
- 서울 동부축구회(2승)
- 인천 그린비팀(2패)
- 전주 베이커리축구단(1승 1패)

- C조(골 득실차)**
- 나폴레옹과자점(2패)
- 수원 수과회(1승 1패)
- 우심회(1승 1패)

- D조**
- 인천 남동축구회(1패 1무)
- 단심회(1무 1패)
- 동그라미호(2승)

시상내용

- 우승 - 동그라미호
- 준우승 - 인천 서구축구회
- MVP - 이대회(동그라미호)
- 페어플레이상 - 한우물회
- 월간 베이커리 특별상 - 우심회
- 응원상 - 수원 수과회